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3.(일) 11:00
(지면) 2026. 9. 14.(월) 조간

배포 2026. 9. 11.(금) 오후

매뉴얼을 익히고 실제처럼 연습하여 해양동물 구조역량을 높인다

- 해수부, 2026년 해양동물 구조·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안목이’ 구조 경험을 공유하고 수영장에서 소형 고래류 구조 실습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해양동물 구조·치료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해양동물 구조·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전국 12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소속의 현장 출동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매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새롭게 제작 중인 「해양동물 구조·치료 매뉴얼」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실제 구조 사례를 활용한 대응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날에는 해양동물 구조·치료 현장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실제 구조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구조·치료기관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한 지난 7월 강릉항에서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구조 절차와 현장에서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공유했다.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매뉴얼 보완 및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종합훈련장에서 전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형 고래류 연안 구조 상황을 가정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소규모 조로 나뉘어 돌고래 모형을 활용해 개체 접근부터 포획·보정, 인양·이동 및 현장 안정화까지 구조 과정을 단계별로 직접 수행하고, 실제 구조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과 협업 과정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동물 현장 구조 작업은 개체 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목이’ 구조 과정에서 얻은 실제 경험을 관계기관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구조·치료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해양동물 구조·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51-773-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이윤재 (051-773-5315)

참고 1

2026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요

- ☐ (교육명) 2026년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교육·훈련
- ☐ (일정/장소) 2026. 9. 8.(화) ~ 9. 9.(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 (강의교육) 2026.9.8.(화) / (현장교육) 2026.9.9.(수)
- ☐ (교육대상) 해양수산부 지정 필수교육 대상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12개소) 소속 직원 등
- ☐ (교과목 편성) 이론 4시간 및 실습 4시간

일 자	시 간	교 과 목	형태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층 컨퍼런스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9.8. (화)	14:00~14:10	(10')	인사말	-
	14:10~15:10	(60')	「해양동물 구조·치료 매뉴얼」 총론 (고래류, 바다거북류, 기각류) 소개	이론강의 (1H)
	15:10~16:10	(60')	종합토론 및 「해양동물 구조·치료 매뉴얼」 개선 논의	이론강의 (1H)
	16:10~16:20	(10')	【휴 식】	-
	16:20~17:20	(60')	우리는 왜, 어떻게 안목이를 구조했는가? - 남방큰돌고래 긴급 구조의 판단, 실행, 시사점-	이론강의 (1H)
	17:20~18:20	(60')	강릉항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해인양 및 이송, 초기 돌봄 과정	이론강의 (1H)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캠퍼스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9.9. (수)	08:30~12:30	(240')	소형 고래류 구조 대응 실무 (행동 분석 / 포획 / 보정 / 이송 관리)	실습 (4H)

참고 2

2026년 교육·훈련 현장 사진

